

두산, '에이치투이노베이션' 설립... 3000兆 수소시장 공략

그룹 내 수소 기술개발 역량 재정비
신설사, 고체산화물연료전지 개발
퓨얼셀·DFCA 등 R&D부문 협업

두산그룹이 3000조 수소경제 시장 공략을 위해 수소연료전지 개발 역량을 한 곳에 집중한다. 두산그룹은 수소산업에서 계열사 간 시너지를 만들고 이를 산업계 전반에 공유할 방침이다.

두산그룹은 수소연료전지 연구개발을 담당하는 전문회사 두산에이치투이노베이션을 설립했다고 30일 밝혔다. 두산그룹은 신설회사 설립을 통해 그룹의 수소연료전지 기술개발의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한편 ㈜두산, 두산퓨얼셀 등 여러 계열사에 분산돼 있는 수소연료전지 연구개발(R&D) 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다.

신설회사는 고체산화물연료전지(Solid Oxide Fuel Cell, SOFC) 개발의



현재 시판 중인 두산퓨얼셀의 발전용 수소연료전지 제품. 연료전지는 수소, 산소의 전기화학 반응을 통해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친환경 에너지 설비다.

중심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두산에이치투이노베이션은 두산퓨얼셀·아메리카(이하 DFCA)의 인산형연료전지(Phosphoric Acid Fuel Cell, PAFC) 핵

심기술을 활용해 한국형 SOFC 개발을 이끌면서 두산퓨얼셀, DFCA 등의 연구개발(R&D) 부문과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두산그룹 관계자는 "R&D 역량을 집

중시함으로써 기술 및 제품 개발 초기 단계에 필요한 투자 등에 대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OFC 생산과 시스템 판매 및 사업권을 보유한 두산퓨얼셀은 SOFC 시스템 및 핵심부품인 셀스택 양산을 위한 기술개발과 사업 다각화에 주력한다. SOFC 시스템은 발전소 뿐만 아니라 선박 추진용 연료전지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 가능하다.

또한 한국형 SOFC 시스템 개발이 완료되면 제조부터 기술 개량, 추가적인 사업모델 개발, 영업 활동 등 전 밸류 체인에 걸쳐 두산퓨얼셀이 중심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두산퓨얼셀은 2024년부터 SOFC를 생산할 수 있도록 새로운 생산라인을 구축할 계획이다.

두산그룹에서 개발중인 한국형 SOFC는 기존 연료전지 타입에 비해 전력 효율이 높고, 750°C 이상의 고온에서 작동하는 기존 SOFC 기술에 비해 낮은 620°C에서도 작동 가능하다. 기대 수명 또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두산그룹 관계자는 "그룹의 수소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근 각 사로 분산된 수소 관련 기술개발 역량을 재정비했는데 그 중 하나가 SOFC 기술 조기개발을 위한 R&D 법인 신설이었다"고 설명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 수소를 그룹의 핵심 성장동력으로 키워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컨설팅사인 딜로이트에 따르면 2050년 글로벌 수소경제 시장은 약 3000조원, 두산의 핵심 타겟인 수소 활용 시장은 1104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망됐다.

글로벌 컨설팅사인 딜로이트에 따르면 2050년 글로벌 수소경제 시장은 약 3000조원, 두산의 핵심 타겟인 수소 활용 시장은 1104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망됐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SKB, 넷플릭스 부당이득반환 청구 반소 제기

“비즈니스 모델 부정확한 채 망 무임승차 지속”

6월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후속조치
“1심 판결에도 협상에 응하지 않아”

넷플릭스의 망 무임승차 논란을 놓고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간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SK브로드밴드는 민법의 부당이득반환 법리에 의거 넷플릭스에 망 이용대가 청구를 위한 반소를 제기했다고 30일 밝혔다.

SK브로드밴드는 “본 소송은 올해 6월 SK브로드밴드 승소로 끝난 1심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의 후속 조치”라며, “인터넷 망은 초기 구축 및 매년 유지관리에 상당한 투자가 수반되어 당연히 유상으로 제공되는 것임에도 넷플릭스가 대가 지급 없이 회사의 망을 이용하고 있다. 1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넷플릭스가 협상에 전혀 응하지 않은 채 망 이용대가 지급을 이행하지 않아 부당이득반환 법리에 의거 반소를 제기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SK브로드밴드는 자사가 구축하고 임차한 국내·국제 데이터 전송망을 이용해 넷플릭스가 이용자들에게 데이터를 전송하는 이익을 얻고 있음에도 아무런 대가를 지급하지 않음에 따라 망 이용대가에 상응하는 손실을 입고 있다고 말했다.

SK브로드밴드에 따르면 실제로 넷플릭스가 회사의 망에 발생시키는 트래픽은 해마다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2018년 5월 50Gbps 수준에서 2021년 9월 현재 1200Gbps 수준으로 약 24배 증가했으며, 그에 따라 회사의 손실 역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가 망을 이용해 얻는 이익과 회사가 당연히 지급받아야 할 망 이용대가의 손실 간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되며 넷플릭스에게는 대가 없이 망을 사용할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국내 사법부의 판단도 SK브로드밴드의 이런 주장에 힘을 실었다. 넷플릭

스는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올해 6월 패소한 후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1심에서 법원은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통해 인터넷 망 연결이라는 유상의 역무를 제공받고 있다고 봐야 한다”며, “넷플릭스가 이에 대한 대가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고 형평에 부합한다”고 판결했다.

한편 SK브로드밴드는 이번 부당이득 청구 금액과 관련해 통상의 재판 절차와 마찬가지로 법원이 주관하는 감정 절차를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SK브로드밴드 측은 “넷플릭스가 1심 판결에서 인정한 망 이용의 유상성을 부정하는 것은 통신사업자의 기본 비즈니스 모델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국내외 CP들이 모두 정상적으로 지급하는 망 이용대가 넷플릭스도 똑같이 지급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강준혁 기자 junhyuk@

LG CNS, 마이데이터 플랫폼 사업 진출

GC녹십자헬스케어, LGU+ 3사 협약
‘라이프 매니징’ 서비스 공동 개발

LG CNS가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플랫폼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LG CNS는 최근 GC녹십자헬스케어, LG유플러스와 ‘마이데이터 공동사업’을 위한 3사간 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LG CNS는 이달 초 마이데이터 사업자 본허가를 획득한 이후, GC녹십자헬스케어, LG유플러스를 시작으로 비금융 데이터 수집과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위한 외부 기업과의 본격 제휴에 나선 것이다.

LG CNS는 기존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의 금융 데이터 기반 ‘개인 자산관리 서비스’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플랫폼 기반 ‘데이터 관리업’, ‘데이터 중개업’ 형태의 B2B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LG CNS는 GC녹십자헬스케어, LG유플러스와 손잡고 ‘금융+헬스케어+통신’ 분야 마이데이터 결합 서비스 ‘라이프 매니징’ 개발에 나

선다. ‘라이프 매니징’은 고객의 금융 데이터, 건강 데이터, 통신 데이터 등을 고객 동의 하에 수집하고, AI로 분석해 개인 맞춤형 헬스케어, 생활 목표 관리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LG CNS는 마이데이터 사업자로써 금융·비금융 데이터 수집, 제공에 대한 고객 동의를 받는다. 플랫폼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통합하고, AI 기술로 분석해 가치 있는 데이터를 생성, GC녹십자헬스케어와 LG유플러스에 마이데이터를 제공한다. GC녹십자헬스케어는 고객 동의하에 건강검진 정보, 건강상담 내역, 생활 습관 등 ‘건강 데이터’를 마이데이터 플랫폼에 통합한다. 금융 데이터, 건강 데이터, LG유플러스의 통신 데이터가 결합돼 생성된 마이데이터를 기반으로, 고객들에게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한다.

LG CNS는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여행, 자기계발 등 생활 주제의 마이데이터 사업을 본격화한다. 유통, 교통, 숙박 등 고객 생활 전반에 관련된 여러 기업들이 제휴 대상이다.

/강준혁 기자

LG전자, 빈센트 반 고흐 작품 복원 지원

세계적 문화유산 보존 기여

LG전자가 빈센트 반 고흐의 작품을 복원하는데 힘을 보탠다.

LG전자는 30일 러시아 모스크바 푸시킨 미술관에 전시된 고흐의 작품 ‘아들의 붉은 포도밭’을 복원하는데 필요한 장비, 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복원 작업은 지난 8월부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LG전자는 세계적인 문화유산을 보존하기 위해 이번 후원에 섰다 나섰다고 전했다. 또 이번 복원 작업이 초프리미엄 가전 ‘LG 시그니처’의 프리미엄 전략에 기반해 문화와 예술 분야의 글

로벌 마케팅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아들의 붉은 포도밭’은 고흐 생전에 판매된 유일한 그림이다. 고흐는 1888년 이 작품을 그릴 때 자외선에 노출되면 색이 변하는 크롬산납이 들어간 페인트를 일부 사용했고 두껍게 물감을 바르는 특유의 화법도 적용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아들의 붉은 포도밭’이 러시아 볼셰비키 혁명과 세계대전 등을 거치는 동안 이리저리 옮겨지는 과정에서 페인트가 변색되고 작품에 균열이 생겨 특별한 보존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LG전자는 이 작품을 복원하면서 그



‘아들의 붉은 포도밭’ 복원 작업 현장 /LG전자

림에 다른 작품의 흔적이 남아 있고, 그림 오른쪽 길가에 남성이 처음에는 여성으로 그려졌다 수정됐다는 등의 새로운 사실들도 발견했다고 전했다. LG전자와 복원팀은 이러한 사실들이 미술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복원 작업은 올 연말에 마무리될 예정이다.

/한창대 기자 cdl@

LGU+ “CBS 드라마 무료 정주행 하세요”

신작 130편 등 1400편 작품 독점 제공

앞으로 LG유플러스의 IPTV에서 미국 방송사 CBS의 최신 드라마를 볼 수 있다.

LG유플러스는 자사의 IPTV ‘U+tv’와 모바일TV 서비스 ‘U+모바일tv’에서 오는 10월부터 CBS의 최신 드라마를 무상으로 국내 독점 제공한다고 30일 밝혔다.

LG유플러스는 CBS가 올 9월부터 미국 현지 방영을 시작한 신규 스포츠 ‘CSI: 베가스’, ‘NCIS: 하와이’, ‘FBI: 인터내셔널’의 국내 VOD 서비스를 시작한다. 영화 및 해외 드라마를 선

호하는 고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신작 130여편을 비롯해, 지난 시리즈 작품까지 총 1400편 이상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그간 CBS 드라마 시청을 위해 다양한 OTT를 구독하던 고객들은 U+tv·U+모바일tv에서 모든 콘텐츠를 무료 정주행 할 수 있게 된다. ‘CSI: 라스베가스’, ‘CSI: 사이버’, ‘CSI: 마이애미’, ‘CSI: 뉴욕’ 등 과학수사물 신드롬을 일으킨 CSI 전 시리즈를 한데 모아 감상할 수 있다. 미 해군 범죄수사국 특수요원들의 활약상을 다룬 ‘NCIS’ 전편과 인기 수사물 ‘FBI’ 시리즈도 모두 이용 가능하다.

/강준혁 기자